

< 교사의 의무 >

의무란 좁은 의미에서는 법률이 법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어떤 일을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강제성을 띤 개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교사의 의무를 최소한의 의무인 법적인 의무는 물론 국민의 사표로서의 어떤 도덕적 필연성에 의해 요구되는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강제성까지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의무는 수행하는 측면의 의무인 적극적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소극적 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극적 의무는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의무, 선사·성실·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등이 있고, 소극적인 의무로는 정치활동의 금지, 정외행위의 금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를 포함하여 교사에게는 다양한 책임 또한 부과되고 있다.

1. 적극적 의무

①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교사의 의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것은 교육과 연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교사일 수 있는 것은 가르친다는 데 있으며,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연마하여 국민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한다. 1966년 10월 5일 UNESCO와 ILO에서 채택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교원은 그들의 지위가 상당히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의 전문적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최고의 가능한 수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함으로써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향상하는 일이 교원의 의무임을 강조하고 있다.

② 선사·성실·복종의 의무

교육공무원법 제 53조에서는 교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 모두 규정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먼저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본인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영광스러운 길잡이임을 자각하고 명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한다."라고 선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술선수범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통상 초임교사 임용 시 임용관자의 교육감 앞에서 단제로 행하지만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고용주의 국가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일정한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 5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소속 장관은 당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 직위에 있는 장관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신분상의 상관보다는 직무상의 상관에게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교원의 주된 업무는 행정상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교육하는 데 있으므로 교원에 대한 직무명령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교원이 학생을 교육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교육자적 양심에 입각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③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의 품위는 국가의 위신과 직결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 59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성실하게 집행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품위 손상의 형태는 방탕, 주벽, 축첩, 낭비, 과도한 부채 등으로서 공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결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기본법 제 14조 2항에서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은 "교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사는 교육자다운 인격과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교원은 교육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윤리의식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 61조 2항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장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청렴한 공직생활로 국가의 이익에 합치되는 공정한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정실을 배제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례, 증여, 향응 등의 행위가 일반 공무원과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즉, 다른 공무원에게는 위법한 경우가 될 수 있어도 교육공무원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스승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학급 내에서 제자들이 정성스럽게 마련한 조촐한 축하의 행사라든가, 성실한 학생지도 행위에 대해 학부모가 고마움을 표시하는 기념품이나 간단한 선물을 하는 경우는 위법이 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비록 적은 금품일지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다면 청렴의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른바 존지에 대한 징계 수위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④ 비밀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 60조에서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무상 비밀은 법령 또는 처분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사무의 성질상, 또 국가적인 이해관계 사항 등이 누설되어 국가안전 보장 상 유해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징계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한다.

교육공무원에게는 국가적인 이해관계 사항 등에 관련된 비밀을 엄수해야 할 경우는 드물겠지만,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학생과의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학부모의 인적 사항 및 가정환경과 관련된 정보, 교육평가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교원에게는 근무기강 확립, 직장 이탈의 금지, 출장,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된 근무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소극적 의무

① 정치활동의 금지

우리나라 헌법 제 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행위의 제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역시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정치활동에 관하여 중립을 지킬 것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중등 교원은 정당 및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 있어서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원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우선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육자이기에 아직 미성숙한 학생에게 자칫하면 편향된 사고나 가치를 주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평성을 유지하고 정관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억제하며 행정의 지속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국가공무원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② 쟁의행위의 금지

과거에 공무원에게는 노동운동은 금지되었고 교원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즉 헌법 제 33조 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법률로 제한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1항에서도 공무원은 노동운동 및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공무원의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점, 공무원이 행한 행위의 효과는 국가에 대하여 보다 발생하고 그 효과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공무원의 집단 행위는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임무에 저촉된다는 점, 공무원은 공무원 특별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이므로 공법상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공법상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항거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있다.

그러나 교원에 대하여 1999년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교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습자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일체의 쟁의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교원들에게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결렬된 단체교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대항하는 태업, 파업(학교의 경우 수업거부) 등의 단체행동이 쟁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원의 단체 행동이 전체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교원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단체 행동으로 인하여 국민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체교섭 결렬과 무관한 교직단체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위한 노조의 집회 및 집단 행동은 관련법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집단 연가를 통한 집회 참석은 수업 결손과 이어져 학습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향은 공무원 노동 활동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며 교원의 경우 제한적이지는 하나 단체행동권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많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 유보는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조항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에게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업무상의 능률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는 어느 정도의 한계를 두고 방임 또는 허용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교육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건전한 영리업무에 종사한다고 하여 반드시

사회적 비난을 받을 정도로 공직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교원이 영리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사회적-국가적 이익을 조래할 수 있으며, 교원으로 하여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가 보장되지 못하는 점 등 몇 가지 점에서 무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공무원은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영리적인 타 업무를 겸직할 경우에도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여기서 비영리 업무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업무에 한한다. 교육공무원이 결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소속 기관장은 교원의 직급에 따라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임용권을 가진 학교장이 된다. 교원의 결직이 허용되는 사례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된다거나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강의를 담당하는 일 정도에 불과하다.

1/5. 木

09/6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보적 관계>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은 물론 학부, 교사, 행정가가 모두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공동체 속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학생인권은 자유, 평등, 복지, 안전참여의 중심 개념으로 이루어지며 이것의 권리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 인권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침해와 교실붕괴를 겪어 학교붕괴로 이어지는 중체적 난국의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조화로운 교권과 인권의 보호속에 적절한 상보적 방법을 찾아 보고자 한다.

□첫째 학생 인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도 있다. 이에 학생 인권의 존중되는 교육방법으로 친화·정서·정감·예절의 생활화, 규칙과 약속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 함양, 존중배려·나눔의 학생 문화 정착을 실천하여 기동생활 습관 형성등이 있다. 이러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과 책임의식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은 교원의 권리 또는 권위를 의미한다. 이는 좁은 의미로 교사의 교육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는 교사의 권위와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을 일컫는다. ^{앞서} 교권의 확립을 위해 ~~학생~~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권리 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주어진 교권을 통해 교사는 교육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생} 학생 학부와의

				※
--	--	--	--	---

○ ○ ○ ○

인간적인 만남을 이루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필요할것이다.

셋째 학생인권과 교원의 상보적인 면을 세밀히 살펴 보자면 학생들의 자기활동을 활성화하여 주인의식을 함양시키고,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교원의 보장을 위하여 교원징계 대상책임제도 및 보정제도 운영을 하며, 민주적 학칙 제정과 교원징계 해결 의결기구를 두어 즉각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전문 변호사를 두어 법률적 지원과 교원징계 예방·해결을 위한 연수와 홍보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교육권이 바로서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되며, 인간교육의 목표도 달성할수 있다. 또한 교사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 되어야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소동·나눔·배려의 민주적인 사회구성원이 될것이다. 미성숙한 학생들의 바람직한 가치정립과 의사소통 및 사회생활의 기본 기술을 습관화시켜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고, 학습권과 교육권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성장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속의 글로벌 인재들로 키워나갈수있는 행복한 학교 현장이 되도록 조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

					*

○ ○ ○ ○

< 업체와 교원의 상생적 관계를 논하라 >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는 모두의 인원이 존중되는 곳이다. 그러나 연일 10대 초반 학생들의 일탈과 폭력 및 교사에 대한 도전과 그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에 학생 인원과 교원이 서로 존중되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I. 학생 인원

학생 인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신장시키고 존경·친절·나눔 배려의 학생문화 정착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는 민주시민 양성의 토대 마련을 위해 시행되었다. 이에 학생들은 폭력이나 위협으로 부터 자유로운 권리로 교사의 처벌에 전면 금지되었으며 복장과 두발의 자유와 휴대폰 소지권 등과 같이 전과 다른 자유로움과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당초 의도했던 자율성 신장이나 책임감, 민주주의와 같은 긍정적 효과보다 학교폭력, 수업파행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표출되었다.

II 교원

교사의 권리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나 단체활동과 같은 것 뿐 아니라 특히 가르칠 권리 즉 교육의 권리^가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에 대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불신과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실시 이후 수업시간의 파행, 생활지도와 ~~상~~ ^{심각한} 지적에 이르렀다. 휴대폰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거나 이를 꾸짖는 교사에게 막말을 일삼는 학생의 영상은 충격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의욕의 상실, 무기력함과 자괴감으로 교사의 권리마저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	--	--	--	---

○ ○ ○ ○ ○

Ⅲ. 학생인원과 교원의 상보적 관계 필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학교만들기는 학생인원과 교원 어느 한 곳에 치중되어서는 안된다. 서로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자존과 감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 해야 하며 학생으로 지켜야 할 본연의 자세에 대한 성찰과 탐구의 비침직한 태도를 길러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과 규칙 제정으로 서로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도움과 격려를 주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대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자행하는 흥미있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한다면 자신의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소질과 적성,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사의 본분을 지켜야 한다. 교단에 오른 순간을 통해 전문성 신장에 노력하고 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기술적인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여 학생과 공감에 청성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교원보호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교원침해사례 시 대응 방법을 철저하게 알아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와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학생 인원과 교원이 서로 인정되는 즐겁고 평화로운 학교가 만들어 질 것이다.

교원이 먼저나 학생 인원이 먼저나 하는 논의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돕는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이는 존중받는 학생인권, 존경 받는 교원의 존엄권 보장이 될 것이다.

학생인원과 교원 모두가 중요한 만큼, 학생은 ^{선생}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교사들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인격이 존중 된다면, 모두가 웃으며 있고 싶은 행복한 학교가 만들어 질 것이다.

					※

○

○

○

○

1812

I. 서론

최근 교육현장은 학생의 인권침해제정에 대해서 전반으로 의견이 양립되어있다. 한쪽에서는 인권침해가 교육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의 장으로 인하여 교육의 추락의 나아가고 교실방의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 고 한다. 이에 인권과 교육의 의미를 알아보고 상호 조화를 이룰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

II. 인권의 의미

학생인권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취지 아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 활동의 자유 보장', '체벌 등 부당한 징계를 받지 않을 권리', '학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이라는 당위성에 의거하여 학생들의 의견이나 선택권은 부각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비해 지향적인 참여민주제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의 다원성과 자율성 그리고 주체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III. 교육의 의미

교육은 교사의 권력 또는 교사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함의는 교사의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권을 의미하며 함의는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들면 교육권에는 교수 의 권력, 교육 방법 선택의 권력 및 평가의 권력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제각각이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의 단초가 되는 생활지도에 대한 역할도 당연히 교육의 핵심내용이다.

IV. 인권과 교육의 상호적 조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육에서 교사의

					※

○

○

○

○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간의 의사소통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사의 교육권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받는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원천적~~ 지나친 강제로 따른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학생의 생활을 지도하는데 ~~필수~~ 있어 원천 조건의 엄격한 조건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불응하는 ~~수~~ 사례가 속출하고 교사 또한 문제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다. 그 결과 생활지도의 공백을 가져오 이는 교사로서의 ~~주요~~ 주축으로 교사의 부어 현상을 가져와서 하고 있다.

다음으로, 교원 강제로 따른 원인에 비치는 문제이다. 기존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결과적으로 타율적 원천, 자율적 원천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그야말로 가정교육과정에 추구하는 ~~행위~~ 원천적 원천과는 거리가 있다.

~~타율적 원천~~ 또한 주요한 원인,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대로 학생의 원천은 보충되어야 한다. ~~이들 보충하기 위하여~~ 이는 교원과 무관적으로 또는 대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의 정당한 권력이 확립되어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이들 원천적 무관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 원천이 확립된다면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 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V. 결론

교육은 교사와 학생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원천과 교사는 상호 대립의 관계가 아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경한 교장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사도 '학생과의' 원천적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학생의 원천에서 소중하려는 마음의 차이를 열어야 한다. ~~이들 원천적~~ 학생들도 자율적 생활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하여 원천을 존중하고 재려하는 민주시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8481

○ ○ ○ ○

학생인권과 교원의 상보적 관계

I. 서론

최근 수년간 지속되었던 교실붕괴와 교원추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해결책의 하나로 교원보호헌장과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마치 학생인권과 교원이 대립각을 세울 것 처럼,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의 시행으로 교실붕괴가 가속화되는 것 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각종 교원 침해 사례로 실추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존중, 배려 사후의 학생문화 정착시킬 수 있기 위해 교원의 의무를 재정립하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논하겠다. 더불어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신장시키고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할 수 있는 학생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II. 교원의 의무와 교원 보호 대책

교원의 적극적 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UNESCO와 ILO의 '교원의 자위에 관한 권고'에 제시된 교육과 연구활동의 의무이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는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가 있으며 직무상 특한 비밀을 엄수해야 하는 비밀엄수의 의무와 같이 교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교원의 소극적 의무는 정치활동금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정치행위금지, 공무원이외의 영리목적업무 종사금지 등이 있다.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교육현장에서 고충분투하는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일반적인 것으로는 교원을 침해받은 교직원을 위한 배상책임제도와 그와 관련한 보험제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 설치 및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적극적 연수와 홍보가 중요하다.

III. 자율성과 책임의식 신장으로 즐겁고 안전한 학생인권 대책

					※
○	○		○	○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의식을 갖춘 학생문화 속에서 학생인권을 지키고 존중, 배려
 다함의 학생문화조성을 위하여 학생인권 조례정착, 학생 생명 존중교육 및 학생
 자치활동이 ^{만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 자율 동아리 활동 활성화, 졸업식 문화
 선택과와 가급 봉사활동 실시 그리고 학생 생활 인권거점 제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자율과 책임, 배려와 협력으로 즐겁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입교사 중심 생활인권 책임재운영을 기반으로 하여 친구사랑주자운영
 효재협교육, 학생및 보원 표창제, 사제동행 미술작품 전시회운영, 및 학교 안전교육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 배움터 지킴이 운영과
 CCTV 설치 및 운영, 학부포 보람교사운영이 필요하다. 더불어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예방자원매척과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운영이 요구되며 Safe-net Wee클래스
 운영, 인성교육 운영계획 마지막으로 학생상담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Ⅱ. 결론 교원과 학생인권 재원으로 인한

지금 우리교육은 전환기적 상황을 맞고 있다. ^V공교육의 위기를 개혁을 통한
 발전의 기회로 판들기 위해서는 교원의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를 반드시
 지켜려는 투철한 시명감과 교원집해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학생 인권의 핵심 철학과 가치를 학생들에게 내면화시켜
 자율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 때 교육과 교사의 진정한 권위가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학생도, 학부포도 과거와 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 과거처럼
 체벌을 허용하고 학생이라는 이유로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하면서 교실붕괴와
 교원추락이 없어지지 않는 양을 것이다. 교원과 학생인권은 양립된 산이 아니며
 '인권존중'이라는 통합된 어휘를 사용하여 우리 교육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자해하는 매질구도를 없애고 학생, 교원 모두가 교육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서로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웅교수		
----	--	--	----------------	--	--

					※

○

○

○

○

학생과 교사의 상호적인 관계를 논하라.

I. 서론

학교는 학생과 교사간의 상호작용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고 교사는 교사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때 주인의식이 함양되고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인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의 위험으로 부터의 자유, 학습받을 권리,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가 있고, 교권은 교사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의미한다. 이 두 권리는 상호적인 관계에 있으며 다양한 학교 문화를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인권과 교권에 대해 알아보고 둘의 상관관계를 논하며 보겠다.

II. 본론

인권은 누구나 소유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장·가능한 보편적인 권리이고 인간 삶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은 ^{권위적인} 학습분위기; 입시 위주의 교육, 학생 인권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율적 생활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타인과 더불어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질을 다지기 위한 학생 중심의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인권에 대한 인식 함양,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 중심의 서열화 ^{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수업 방법과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평가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교권은 협의의 정의로는 교육권을 의미하나 광의의 개념으로는 교사의 권위와 생활 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권을 포함한 개념이다. ~~교권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 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부터 침해 당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 안전 사고와 관련된

					※
--	--	--	--	--	---

○ ○ ○ ○ ○

교사에 대한 편견과 금품 요구, 학부모의 부당 행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청을 침
해하는 학생들의 구타나 협박, 교원의 사례들도 빈번히 일어나는 등 교원에 대한 침해는 교
원 보호 현상이라는 문제가 등장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교원 침해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실정~~ ~~에서 교육 당국과~~ 이러한 교원침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원 보호 대책 관련 교직원 연수 및 교원 침해 사례 유형별 대응방안을 대안
화하여 제각각 ~~보완~~ ~~노력~~ ~~과 함께~~ 단위학교에서의 노력과 함께 교원 침해를 받은 교직원을 위한
배상책임 제도가 보완제도를 도입하고 사건을 즉시해결 할 수 있는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 ~~이다~~. 전문가의 협조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의 안전과 교원은 학교의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의 확립을 위해 상호
보완하여 정착되어야 하는 원리로 교사의 교육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교
사 상호 교원과 학생 안전에 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학교차원에서의 학생안전과 교원을 야할 수
있는 학교인권 규정을 제정 하여 학생 상담 활동을 활성화하고, 교사와 학생이 동아리를 이루어
협동학습 할 수 있는 음악회, 미술 전시회 등을 기획하여 학생과 교사가 신뢰할 수 있는 학교 풍토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과 소통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인간을 길러
내는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는 바탕을 마련해 줄 것이다.

Ⅲ. 결 론

교원과 학생 안전은 양립될 때 여기서 야기되는 문제는 결코 불과라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육 현상이 학생의 존재적 능력을 발휘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줄거를 맞이되도록 교원이
보장되는 풍토가 조성될 때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교육 풍토가 상호 존중할
때 교육이 목표로 하는 배려하고 소통하는 민주 시민의 양성에 한 발 다가설 수
있다.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I. 서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교사의 교권이 바르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도 달성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또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은 인권이 존중되고 교사들은 교육권을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대하여 논하여 보겠다.

II. 본론

학생의 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되어야 인권이 존중되는 전제조건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은 인권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인권 존중으로 사상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정착, 학생 생명존중교육, 배려와 나눔 중심의 봉사활동 실시, 인성교육,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대한 대내외적 홍보를 통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인식시키고, 또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교권을 침해받은 교직원들 위한 배상책임제도나 그와 관련된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전문변호사를 두어 법률적 지원을 받거나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수와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의 인권 및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된다면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땅히 함께 성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적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안~~되~~되며, 교사는 교육전문직으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생 생활 방식과 인권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전정한 교육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교사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교권 보호 관련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올바른 교권을 확립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시각이 사라져,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교육현장이 되어 꿈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	○	○	○
※			

(을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	○

인권이란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 모든 개인이 인간 존제의 보편적 가치로서 등
등하게 갖는 권리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평등한
형적인 관계보다는 종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에서의
교사 - 학생의 관계는 형적인 관계로 변했으며 이러한 관계에서 하면서 인권
과 교권이 상충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사랑의 개로 학생을 훈육시키려는 교사는
폭력 교사로 낙인이 찍히고, 학생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훈육하는 교사를 조롱하고 매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학생 인권과 교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보적인 관계에 대해 논해보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먼저 학생인권을 살펴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친구와 교사로 부터 차별받지 않
고 동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있으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
유로써 권리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가 있다.

다음으로 교권을 살펴보면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교육과 연구활동과 산학~~
~~협력 등 의무 및 비밀명수의 의무를 다하고, 교육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육권과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 활동
권 등이 있다.

교사가 소신있게 구애받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학생들도 질 좋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수요자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소신있게 가르치려는 교사들이 위축당하는 사례가 종
종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자위와 권한이 확보되어야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모델이 정착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교권이
바르 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

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교권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들의 교육권을 존중하
는 풍토를 조성하고 불신과 부정적인 시각을 털어내고 믿고 따르다면 학생들도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

					※

○ ○ ○ ○

학습 효과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성장도 할 수 있다. 학생들도 자율적 생활과
책임의식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미래의 인간상에 맞는
인재로 자라날 것이다. 이렇듯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학생들
로부터 존경을 받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 상의
일체가 이루어질 것이며 꿈과 행복이 가득한 학교로 거듭날 것이다.

					※

○

○

○

○

인권은 누구나 소유하고 주장 가능한 인간 삶에 필수적인 기본 권리이다. 그 중, 학생인권이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교권이란 교사의 권리 또는 권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권과 생활보장권 및 자율적인 단체행동권 등을 포함한다. 최근 학생인권이나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생 인권과 교권의 상보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대책을 세우고자 한다.

첫째, 학생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학생 인권과 함께 홍보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앰버서더인들 전 개한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이물감 아픔을 아낀다. 이를 위해 수업의 형식을 벗어나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신개념 행동 프로그램이나 서로 진정성을 나누어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의 장을 제공하여 서로를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한다.

셋째,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 문제 발생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위원에 되는 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의 장에 방침에 따라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세우고자 한다.

					※

○

○

○

○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별개의 권리가 아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받침될 때에 두 권리 모두 보호되고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과 교권을 제정하고 확보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행복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것이다.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

					*

○ ○ ○ ○ ○

인권과 교원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논하라.

1. 오늘날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대두되는 문제중의 하나가 학생인권 문제다. 학생 인권이란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신장시키고 개성을 존중하며 친절과 질서 예절의 생활화, 학교규칙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의 함양속에 도덕적 민주시민을 만들어 가는 권리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개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강조 됨으로써 교사와 학생 사이에 도덕적예절과 존중과 사랑의 원음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추락으로 연결돼 학교붕괴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진정한 학생의 인권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교사와 학생이 상호 신뢰 관계를 유지할수 있는 진정한 교원 확립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시점이다.

2. 학생 인권에 대한 문제점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지식 정보화 사회에 학력신장과 개인별 성적출세우기로 인한 과도한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이는 인간중심의 교육과정 보다 는 능력과 실용적 지배가 우수하고 높은지위와 권력을 얻기위한 지위경쟁이론이 학생들 사이에서 팽배하다. 또한 가정에서는 학교학력 상승이론 중 개인의 수업성능을 기대하기의 한 기술기능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감을 통한 인성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수능의 전면적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성적출세우기와 학생성적출세우기의 성적 지상주의에 서 벗어나 창의적 체험활동 및 스포츠클럽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보장하고 능력을 활성화 함으로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학교교육의 성패는 교사의 질에 달려있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선교육 현장에서 교사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이는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학습권에 대한 침해는 받고 있다. 이는 곧 교원의 실추를 의미한다.

					✖

O

O

가정에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차에 대한 역할을 축소함으로써 교사의 권위마저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 또한 교사에게 대한 믿음과 존경보다는 인간성이 결여된 교사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 또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교원의 회복은 인간성 회복을 의미하며 학생과 상호신뢰 및 존경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원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소통, 실존주의적 성향을 통한 수용적 자세, 교원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상호신뢰감을 일치할 수 있는 대표형성 등을 통해 인간적인, 인격적인 존중을 형성함으로써 교원을 회복시킨다. 또한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헌신적이고 봉사자세는 물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수자성을 정립함으로써 교원 회복에 다가설 수 있다.

3. 학생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서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되어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교원은 학생과의 상호신뢰와 믿음이 전제 되었을 때 존중되고 존경심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인권이 확립 된다면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존경심 있는 교사의 권위를 확보 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방지에 주력한다.

전국 학생의 인원과 올바른 교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원 팽배주의와 개연주의를 혁파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체주의적 속의 교육이 펼쳐나가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미래의 희망의 넘치는 학교는 인성과 인권의 어두운 실재와 정서성과 가치가 공존하는 참다운 학교가 형성될 것이다.

					※

○

○

○

○

I. 서론

교육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을 사랑스럽게 살 수 있는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교사를 또한 올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존경의 대상으로 권위가 보장됨으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교사들의 권위와 사기도 실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권을 확립하고 교사들의 교권 보호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II. 본론

1. 학생 생활인권 교육

먼저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은 나라는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 책임의식을 신장시키고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애려·나눔의 학생 문화 정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하여 세부적인 실천 방안으로 친구사랑주관을 운영하여 친구의 인권도 존중하고 애려하는 가운데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의 키나갈 수 있다. 더불어 지속적인 학교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애용이지킴이 운영, 생활인권지원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설문조사와 수시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 존중으로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나눔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2. 교권 보호 대책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을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배우 중점항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동일시하는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은 교사를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적극적인 의무와 소극적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먼저 적극적인 의무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연구활동의 의무이다. 교사의 지속적인 교수-학습의 질향상을 위한 자기연찬과 연구활동이 없다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다. 아울러 소속 상한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는 신서. 성실.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소극적인 의무에는 정치중립의 의무와 공무 이외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일반적일 것과 세부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 인 것은 애상책임제도나 전문보호사들의 지원 및 교원장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수와 홍보를 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것은 시도교육자원청의 청소와 단위학교 내에서의 학 직 제정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① 인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소유하는 보편적 권리이자 인간 삶의 필수적 기본 권리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함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요한 교육의 주체가 되는 장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 인권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단위 학교 및 학급 내에서 학생 지도의 어려움과 더불어 교원 침해와 교실 붕괴 현상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학생 인권과 교원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교육의 정상화의 필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도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학생 생활 인권 교육 방안과 ~~교원의 위상과~~ 교원 보호 대책 ~~과 아울러~~ 학생 인권과 교원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 논해보겠다.

학생 인권은 학교에서 차별 받지 않고 폭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이다. 이를 위해 ^{안전}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키우기 위해} 학교에서의 ~~책임과~~ ~~협력~~ ~~협력을 통해~~ ~~학생~~ 학생예능 경연 발표대회나 체험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칙과 약속을 지켜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을 함양하여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려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학부모 보살 교사를 운영하며 인성교육 및 학생 상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 ~~으로 오늘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원 침해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권에 대한 교육 행정기관, 학교 행정자, 동료 교원, 학부모,~~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일반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교원을 침해 받은 교직원을 위한 배상책임제도나 관련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사안 발생시 해결을 위한 가구설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이다. 세부적인 것으로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
					06/9

Ⅰ. 서론

학생에 대한 인권 존중은 학습 분위기가 저해되거나 지도가 어려워지고 단위학교 자율성이 침해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일단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이로 인한 교실붕괴와 ~~교사의~~ 교권침해는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에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존엄한 권한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존중되며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해보겠다.

Ⅱ. 본론

1. 학생인권 존중으로 사람이 넘치는 학교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에서 자치활동의 활성화, ~~배려~~ 나눔과 배려공간의 고취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생인권 제정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개성별 내용이 있으며 제·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며.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스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생명존중교육을 전개하여 학생인권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둘째, 학칙 제·개정시 학생의견을 수렴하고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등 다양한 행사를 학생 스스로 계획·운영하여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 한다.

셋째, 학생 자치동아리를 조직하여 봉사활동과 연계운영함으로써 나눔과 배려, 협력을 통하여 좋은 공동체이상을 함양하도록 한다.

2.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교육이 살인 교사 살인’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은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불신이 팽배하고.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간의 의사 소통이 부족하여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례별 대응 방안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최근들어 교사에게 반항하며 핸드폰으로 교사를 신고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인권의식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체벌과 맞물리게 되면서 교사의 정당한 지시마저도 학생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교육적 행동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현장은 교사의 권위와 권리를 교권과 학생 인권의 상호요소를 발전해 상보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 따라서 인권과 교권에 대해 알아보고, 두 권리의 상보적 관계에 대해 논하겠다.

인권은 누구나 소유하는 보편적인 권리로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가능하고, 인간 삶에 필수적인 기본 권리이다. 그러므로 학생 인권은 학생이 학교에서 자물과 책임으로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고, 배려와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학교 생활을 누림으로써 사람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를 위해 학생은 자치활동을 활성화 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학생예능 경연 대회, 교원음악발표회 및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 인권지도 책임제를 실시해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생상담을 활성화 함으로써 학생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하고 사람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게 된다.

교권은 학생들을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교육권으로 교사의 권위를 중시한다. 이는 교사가 인간으로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가, 동료교원, 학부모, 학생등의 침해를부터 안전하고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에 몰두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교권 침해 발생시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과 유관기관의 협조체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수와 홍보가 필요하다. 더불어 자위학교에서는 교육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칙을 제정하고 교권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교권 침해 유형별 대응매뉴얼을 이용해 교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한다.

					※

○

○

○

○

인권과 교원의 상반적 관계 논쟁

I. 서론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교원과 학생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법령에 규정된 교원은 공교육이 따듯 부정적 시각과 교사와 교육 수요자간의 소통의 부재로 침해받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통과된 학생 인권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과에서는 인권과 교원을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반적 관계에 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단위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나 부이 실행될 수 있다. 먼저 단위 학교에서는 교원을 침해받은 교원을 위한 강력한 제정이 포함된 계획을 제정하고, 교원 침해 사례 발생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원 기구인 가칭 교원침해대책방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한 법률적 자문을 받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 변호사를 위촉하거나 관내의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뿐만 아니라 교원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수와 홍보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사안 발생시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TF팀을 조직하여 ~~추진~~하며, 교원 보호 대책 관련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 학교에 배포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 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안내 책자도 발간하여 적극 효과를 높인다.

					※

○

○

○

○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단위학교에서 학생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배려와 나눔 및 소통의 실천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 조례의 정착을 위하여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 규약을 개정한다. 그리고 학생 자치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잠재적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신장시킨다. 또한 소통과 나눔, 배려와 협력으로 학교 폭력 및 학급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활안전자원센터~~ Wee 클래스를 운영한다. 다음으로 지역교육자협의체에서는 단위학교와 연계하여 Wee 센터를 운영하여 학생 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자원의 Wee 클래스 및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단위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각별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초·중·고 학교급별로 생활안전자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및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를 아민한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정당한 권한인 교권은 상충적 관계에 있다. 이 두가지는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기본적 권리이자 양립적인 권리이다. 또한 보편적 권리가기도 하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권리만이 정당한다고 볼 수 없고 상호 존경되어야 할 것이다.

IV. 결론

~~교육자~~ 교육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세 주체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에 의해 모든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두 주체의 권리는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교육적 태도면의 정반대이나 교육현장의 기본 사상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소통, 배려, 나눔이 있는 즐겁고 행복한 상황이 넘쳐난 교실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새로운 학교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

○

○

I. 서론

2011년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학생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조치가 있어, 지금까지 학생을 통제해 오던 수단이 없어짐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사례는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인 교수학습을 방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에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권과 인권이 상호 존중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II. 본론

1. 교권 확립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증가하지 못한다’는 말은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 교~~학~~생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이는 UNESCO와 ILO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교원의 자위에 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이다. 그래서 교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에서는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인성교육계획에, ^{인성}사제사랑하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사와 학생 간에 이해의 폭을 늘리는 노력을 진행하고, 만일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되면 학부모와 교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그 대책을 논의하여 처리항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 사안을 처리할 때부터 개별 및 교장이 수행되어야 하며,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하

					※
--	--	--	--	--	---

○ ○ ○ ○ ○ ○

로록 도와주며, 치료를 위한 one-stop 진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학생 인권 보호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한 일반적인 권리로 교실에서도 보
장되어야 할 권리이다. 그런데 지난날 획일적이며 지시적인 교수-학습
지도법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 졌을 때에 효율적인 학습은
누가 처벌이 존재했고 아직까지도 학생들을 손쉽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의식 전환으로 인하여 변화를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교사들은 지금까지 사용되어 온 지시적 교수-학습
방법을 탈피하고 통제 위주의 생활 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중심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전환하고 민주적인 생활 지도를 강구해야 한다. 즉 단위학교에서
는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생의 의견이 학생 지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생활 규칙을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가 협의
하여 만들고 지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결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은 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본다.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및 학부모 간에 충돌될 수 있는 인권
과 교원의 문제는 사회의 발전,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교원 확립과 학생 인권 보호는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감 구축을 위한 소통이 필요하며 배려와 협력함이
요구된다. 단위학교에서는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생활 규정 제정,
교원총회 재조직위원회 등 교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원과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연수로 실시하여 공통 교원과 인권이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

○

○

○

○

I. 서론

1998년 고4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적적인 관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 학생 인권에 제정에 있어, 고4학생들의 문제가 사회의 커다란 이슈로 대두 되고 있다. 이는 학생 인권에 제정 이후 고4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집단 지능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버려 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여기서는 학생의 인권과 고4의 상호적인 과정에 대해 논해보고 한다.

II. 본론

첫째, 학생의 인권은 학생의 인권을 관할하는 것은 인적적으로 인식하는 고4의 인권의 전제에 의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가능한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생 생활 방식과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의 자리 매김이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존중하는 증거는 학교 및 배려와 협력으로 인권을 학교 그리고 학생인권 존중하는 사람이 고4를 만들어 학생들의 잠재능력 발전 기회제공으로 차등과 책임의식을 신장하여 증거는 학교를 존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고4의 인권은 고4의 교육적 권리와 사회적 참여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행정기관, 학교 행정자, 동료 교사, 학생 등에게 부여된다. 그런데 최근 학생 인권의 중요성은 교사, 학생, 고4의 교육기관 구성적으로 고4의 부재 현상을 초래했다. 고4의 배상 책임제 및 보험제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고4의 인권을 시정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결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4의 인권을

					*

○

○

○

○

의 선생님은 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 노력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부응적인 자세의 해소 노력 그리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의사소통 증진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사의 질은 교사의 질을 증가 할 수 있다.' 는 말은 단호하게 있어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교사는 교유권을 바른 세외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들과 소통과 나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우월의식을 함양하고 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통하여 교원과 인원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III. 결론

학생 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반적 관계에 놓여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자의와 권한이 확보되어야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인권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 인권이 확립된다면, 존중받고 존경받는 학교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학생들도 자율적인 생활과 책임의식 강화로 자아의 인격을 아울러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 해 나갈 것 이다.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웅교수

☐ ☒ ☐ ☐

둘째, 대리와 정력으로 안전판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

○

○

○

○

안전교육계획에 의거하여 CCTV 설치 및 배움터 지킴이 등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 및 근내외 안전사고에 대처해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꾸준하고 지속적인 학생안전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

중요한 안전관 학교문화 조성 및 정책은 ~~학생인권~~ ~~학생인권~~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가 병행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

2. 교원 강화

교원을 보충하고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는 일관적인 것과 세부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관적인 것으로는 교원을 교체받을 시에 배움터문화제와 관련된 보충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또한 부담없이 교원강화를 받을 시에는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것으로는 시도교육위원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련 매체 및 제1 및 연수를 실시하여 단위학교에서는 교원보조를 위한 세부적인 학제 제정 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노력이 필요하다.

3. 학생인권과 교원의 상호보완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호적 관계에 놓여 있어서

					※
--	--	--	--	--	---

○ ○ ○ ○ ○

마지막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분리되거나 대립적인 관계
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점은 해결하는
포괄적인 해결방안은 모색해야 한다. 학생의 인권이 확립되고 존중된다면 교사 역시
교육행위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정착은 통해
학생의 인권의 교사의 교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II 결론:

학생들의 자유성과 책임있는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한다.
동시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 받게 되면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달성되기위해서
교사들의 교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별적이고 대립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이 아닌
상호 이해 서로를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로서 학교 문화를 정착해 갈 때 진정한
교육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1603.

(을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웅교수

					※

○

○

○

○

I. 서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켰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생지도가 어려워지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이제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심각한 교권침해와 교원 봉괴 현상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원의 사기는 크게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이 존중되는 생활방식과 인권을 상호존중하는 풍토 뿐만 아니라 각종 교권 침해 사례로 인해 실추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학생들의 지적체를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교원의 의무를 재정립하고 교원을 보호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논의하겠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땅히 함께 신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학생 생활인권 교육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에 학생인권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에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권리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사간의 신뢰를 위해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의식을 신장시키고, 친절 질서, 청결, 예절의 생활화, 규칙과 약속을 지키며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 함양, 존중, 배려, 나눔의 학생문화 정착을 실현하여 민주적의식을 함양시키는 학생생활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구체적인 교육방법을 학교, 지역교육청,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III. 학생 인권 존중으로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

우선 단위학교 차원에서는 실현해야 할 사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각종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예컨대 생활인권 자원센터를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설치 운영하여 인위침해의 사전예방 및 침해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하며 CCTV를 설치 운영하여 학생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학부로 보양교사 운영이나 어머니 폴리스 운영,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에 노력하여야겠다. 둘째, 자율과 책임이 따를 때 진정한 권리실현이 가능한 만큼 자율과 책임으로 즐거운 학교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시켜 학생들 스스로 학교 단위의 생활 안전규정을 제·개정하여 지켜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호체행 교육 실시, 나눔봉사활동 실시, 학생상담 활성화, 학업중단 예방교육, 자살예방 교육, 친구사랑 주간 운영, 학생폭장, 건전한 축제 문화 형성, 선행 교육 생활지도 등으로 건전하고 즐거운 학생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청 단위의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센터를 조직 운영하여 학교를 지원하며 상담센터와 상담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상황 발생 시 처리 요령을 매뉴얼화하여 보급하며 Wee클래스를 운영하여 치료 및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으로는~~ 진정한 학생인권 존중 문화는 학교와 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사회적 차원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며 나눔의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정립되어야 한다.

IV. 교원의 의무

○

1603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

					※

○

○

○

○

~~지식이란 사회에서는 지식을 생산하고, 기존의 지식을 가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인간성이 풍부한 인재가 중시된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도 '개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학습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을 인간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Bruner는 어떤 연립~~

즐거움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며 올바른 교원을 확립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시각을 털어 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공과 행복이 가득한 교육의 장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갑지		유니텔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	-----------	--	------	--

					※

○

○

○

○

I. 서론

인권은 누구나 소유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장 가능한 일반적 인 권리이다. 또한 인간 삶의 필수적인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불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논하면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하여 보겠다.

II. 본문

첫째, 학생의 자학과 책임의식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협력의 학생 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노력한다면 학생인권 존중으로 사람이 넘치는 학교가 될 것이다. 기존의 학교 문화는 학생들이 수동적이고 교사의 통제적인 문화였다. ~~이러한~~ ^{이에} 학생들에게 자학과 성과 책임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학생인권 향상과 자학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안전한 학교가 될 것이다.

둘째, 교원 침해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 뿐 아니라 교원 침해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교원~~ 교육 현장에서 교원 침해와 교원 불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수 및 홍보를 통해 교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교원 침해 매뉴얼을 제작 보호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원 침해 의결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셋째, 학생 인권과 교원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땅히 함께 신장

					※

○

○

○

○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학부모, 교사, 학생이 함께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의 교권을 존중해 준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교육의 불신과 부정적 시선을 철어내고 상호 존중하는 사랑이 넘치는 학교가 될 것이다.

III. 결론

학생 인권은 교사의 장엄한 권함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지위와 권함이 확보되어야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모델이 정착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학생 인권도 확립될 것이며 따라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풍토가 조성될 것이다. 학생들뿐 아니라 자율적 생활과 책임의식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아울러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I. 서론

인권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말한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려야 할 권리로 학생도 예외일 수는 없으며 이에 학교 일선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조례와 학교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학생생활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 우려하는 바도 크다. 이에 올바른 학생인권과 교권의 확립 방안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II. 본론

1. 학생인권 존중으로 사랑이 넘치는 학교

학생의 인권 존중은 사랑의 시작이다. 인권을 존중 받도록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배려와 나눔, 협동심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며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알아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활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업시간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동아리활동과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중 받는 학교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2. 교사들의 교육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

정당한 교권을 지키는 일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교권 보호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안정적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을 심어 줌으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서는 교권 침해사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는 「교육활동보호 콜센터」와 소송전담법무담당관이나 고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며 교권을 침해 받은 교원들을 위한 보험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3. 학생의 인권과 교권의 상보적 학교문화 조성

학생의 인권과 교권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 문화를 위해서는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공감하는 학생 생활 규정이 필요하며 이를 잘 지키려는 실천 의지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학칙 제정을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거나 그런마일리지 시스템을 운영으로 체벌이 아닌 상점과 별점 운영으로 규칙과 약속이 살아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

III. 결론

학생의 인권은 교사의 정당한 권한과 상보적 관계에 놓여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이 확보되어야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모델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학생 인권이 확립된다면 존중하고 존경받는 학교 풍토가 조성될 것이며 학생들도 자율적 생활과 책임의식 강화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커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1. 점속다. 공익?

2. ① ② ③ 재산 주 권 재산 주 권 재산 주 권 재산 주 권

3. ① ② ③

나 권

1가제지판스 기/피(권리)

Date.

Subject.

성명 : 오 023

문) 학교폭력 근절 추진 계획 (가정)

I. 근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제 시행령 제2조
2. 2012 대정교육의 방향 - 폭력과 안전사고 없는 안심학교

II. 목적

1. 과시간 안전한 학교 정착
2.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위한 안전지킴이 및 과 순회 활동 강화
3. 가정, 학교, 사회 연계한 학생들이 바른 생활 유도

III. 방침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시행과 실효성 제고 위한 노력
2. 안전지킴이 및 과 순회 활동 강화로 학교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
3.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활동을 통한 학생들이 바른 생활 태도 함양
4. 학생상담 및 인성교육 활성화로 학교폭력 및 비행의 근원적 예방

IV. 개요

- 1.
- 2.
- 3.

V. 세부계획

1. 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안전지킴이, 학부로 연수.
가. 일시 : 2012. 3. 20(화) 14:30 ~ 16:00
나. 장소 : 대정학생문화센터
다. 내용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실제적 운영

2. 학교 폭력 예방 체계 구축

가.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구성 보고

1) 대상 : 교사(3명), 학부모(2명), 경찰관(1명), 기타(2명)

2) 역할

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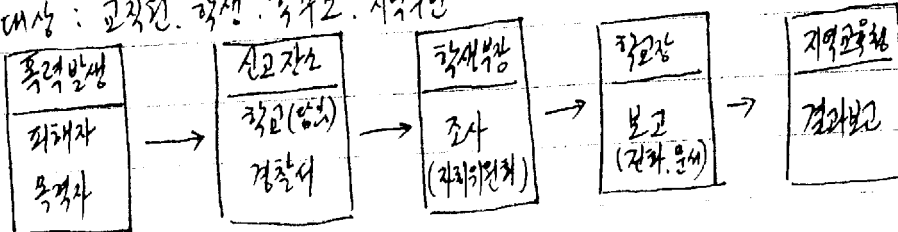
나) 가해·피해자 선도 및 보호

다) 가해 학생 징계

라) 학기별 1회 이상 개최

나. 학교 폭력 발생시 대응절

1) 대상 :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다. 안전지킴이, 교사 순회활동 강화

1) 대상 : 안전지킴이, 교사

2) 장소 : 학교 취약장소

3) 시간

가) 안전지킴이 : 등교, 휴식시간, 하교시 학교주변 순회

나) 교사 : 방과후 학교주변 순회 강화.

라. 학교 폭력 예방 경로를 위한 다양한 신고망

1) HOT-LINE (1588-7179)

2)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계 : 060-0000

3) 1318

4) 폭력신고센터

Date.

Subject.

다. 매월 설문지 작성의 날 운영

1) 매월 4일 : 학교 폭력 설문지 작성일

2) 대상 : 전교생

3) 보고 : 매월 7일

4) 보고체계 : 학교 → 지역교육지원청 → 시교육청

바. 상담 및 인성교육 강화.

1) 인성교육 방법

가) 대상 : 전교생

나) 방법

① 아침자습 5분간 TV동화 반영

② 종례시간 발표하기

9082

I. 근거: 2012 전북교육 기본방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인권포용 학교 문화 만들기.

II. 목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민성교육으로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실현

민주적 학교 생활을 통한 학생 인권 신장 및 성숙한 민주시민육성

III. 추진전략

1.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한 학교 생활규정 개정.
2.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T/F 팀 구성 운영.
3. 시범 학교 선정 운영 후 단계적 확대 실시
4. 학교폭력 전담 책임교사제 실시.
5. 학교폭력 신고 의무제 및 신고학교 인센티브제도 아면 시행.
6. 학생 인권 지원 센터 운영.
7.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교육청·공동·전담기구 구성 운영.
8.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 책자 발간 홍보.

IV. 추진개요

순서	명역	내용	일정	담당자
1	인프라 구축	T/F 팀구성, 인권조례 개정 점검	2012.3	장광사
2	운영지원	홍보책자 발간 보급	2012.4	장광사
3	점검및인성형	우수교 및 우수교원 사례 일반화	2012.11	장광사

V. 세부추진계획

1. 학교폭력 관련 인권 조례 개정 T/F 팀 구성.

가. 구성: 인권 관련 전문가: 장광관, 법률가: 교사, 학부모 포함한 15명 내외.

갑지			유니텍 교원연수원 이용교수		
					※

나. 활동내용: 학교폭력·권력 위한 관련·인권 조례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각급 학교 운영 실태 조사 등.

2. 사각지대 CCTV 설치

가. 일시: 2012. 3월 한 (세부인정 주류 전달)

나. 내용: 시범학교 선정된 학교(6개교)의 사각지대 우선 설치 운영.

3. 시범학교 선정 운영

가. 일시: 2012. 3. 2 ~ 3. 14 (교육청 광복 방송)

나. 방법: 학교별 불인자문 이용 응모

다. 선정결과 발표: 2012. 3. 25 (초3개교, 중2개교, 고1개교 총 6개교)

4. 단위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 공동운영원 운영 (이차생략)

Ⅵ. 소문예산: 학교생활규정집 발간 X 000권: 000천원. CCTV 설치 X 총 6개교 X 0대
관련 홍보책자 발간: 총: 000천원.

Ⅶ. 기대효과:

1. 상호인권 존중 의식 함양으로 안전한 학교문화 창출.
2. 자질은 갖춘 미래지향적 민주시민 양성.
3. 공동체 의식으로 함양된 성숙한 학생 인원 진상.

Ⅷ. 행정사항

1. 우수교 및 우수교원 (3명) 표창 (교육청)
2. 우수사례 발굴 및 자료 공유 (교육청 광복 방송)

붙임: 폭력 관련 시범학교 운영 계획서 및 지원서 양식.

3. 학교폭력 근절 추진 대책 기획

3080

갑지		유니텔 교직원수원		이용 교수	
----	--	-----------	--	-------	--

					*
--	--	--	--	--	---

--	--	--	--	--	--

I. 근거

○ 2012 서울 주요업무 계획 -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II. 목적

-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
- 다문화 이해 및 공동체 의식 내실화
- 학교 상담활동 지원 강화.

III. 방침

- 학교 공동체의 인권 의식을 제고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시스템을 구축한다.
-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안전망을 구축한다.
- 갈등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인권·비폭력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여 교육환경의 안정성을 강화한다.
- 다문화 가정 지원 책임네트워크 조직 및 운영을 통해 언어·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고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IV. 추진개요

순서	영역	내용	일정	담당자
1	인프라구축	1-1. 학교시스템 구축 (구축) 1-2. 지역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2012. 2 2012. 2	장학사 장학사
2	운영지원	2-1.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조성 2-2. 학교폭력 예방 공감대 형성	2012. 3~12 11	장학사 교원 장학사
3	점검 및 컨설팅 활동	3-1. 우수사례 일반화, 위반사례 컨설팅	2012. 11	장학사 교원

V. 세부추진 계획

1. 학교 시스템 구축

- 가.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치유프로 그램 운영
- 나. 교내외 모든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불관용 원칙 도입
- 다. 학생·교사·학부로 대상 인권교육 실시 및 비폭력·평화 교육을 위한 포대 상담프로 그램 운영
- 라.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통한 초위험 CCTV 통합관계 센터운영
- 마. 서울형 인권·비폭력 평화교육 프로그램 보급

2. 지역유관 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 가. 지역단위 경찰서, 자원방범대 등과 연대하여 학생안전지도
- 나. 학교순찰활동 강화
- 다. 교육청·기업·법인·대학교 연계 다문화거점지원 체제 구축

					*

○

○

○

○

3.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 조성

가. 학교 공동체역 의견 수렴을 통한 '학교 생활 규정' 제·개정

나. 학교 생활 교육 혁신 방안 추진

- 생활 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 명시

- 생활 교육 혁신 매뉴얼 개발·보급

다. 위기 다문화·탈북 가정 학생 지원

- 위기 다문화 가정에 대한 Wee 센터 연계 가족 상담

- 대학생 활용 멘토링제 운영 및 이중언어 강사 지원

- 탈북 학생 멘토링제를 통한 학교 적응 지원

- 다문화 위력형 대안 교육 기관 확대 운영

4. 학교 폭력 예방 공감대 형성

가. 친구사랑 주간 운영

- 일시: 인권의 날 1주간

- 친구에게 사랑의 편지쓰기를 통해 우정을 함께 나누는 장을 마련

나. 교직원의 학교 폭력 인식 제고

- 직무·자격 연수시 학교 폭력 근절 내용 의무 반영

다. 담임교사 연수 실시

- 연 15시간 이상 연수 의무

5. 우수 사례는 일반화 하고, 학교 폭력 발생시는 컨설팅 지도·점검

갑지			유니텍 교원연수원 이웅교수		
----	--	--	----------------	--	--

					*

○

○

○

○

VI. 기대효과.

1. 인권 존중의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한 학교 공동체 의식 제고

2. 학생 인권 보장의 사회적 기준 마련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 시스템 구축.